

## 좋은 한우 만들기... 기본에 충실해야

농협중앙회 안성교육원 교수 / 원 유 석

한우개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올해 9월 내가 일하고 있는 농협 안성교육원에서 최근에 ‘한우사업선도요원반’ 교육을 받으신 이억조씨(경북)께서 교육을 마치면서 내게 물어온 질문은 “개량을 해서 좋은 번식 암소를 갖고 싶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 것인가?”였다.

유전능력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니 DNA 마커니 거창한 말들을 들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 한우 사육농가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솔직한 질문이면서, 또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하여, 이번 에 이 물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째, ‘남의 것과 비교하여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나만이 갖는다는 것’이 차별화인데, 이것은 오랜 기간의 투자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얻어져서 유전적인 독특함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 DNA 마커니 수정란이식이니 많은 첨단 유전 육종기법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실용화 단계

에 들어가고 있으나, 그런 기술로 금방 농가에서 유전적으로 차별화되는 밀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특정 기술로 남이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차별화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유전적인 능력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특정 사료를 조금 다르게 먹여서 브랜드라고 내놓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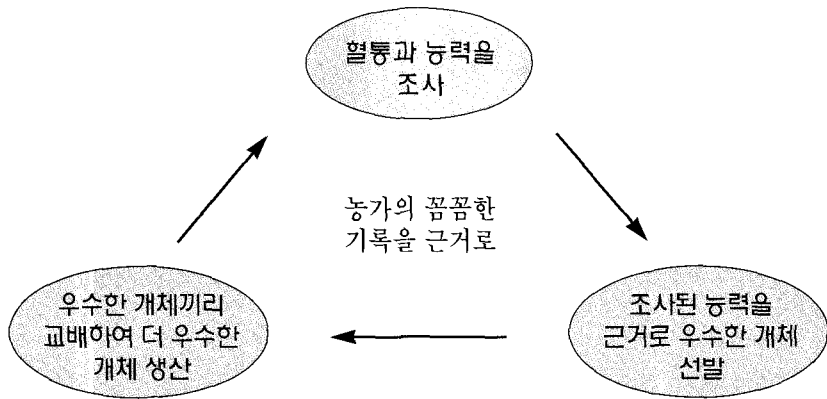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밀소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그런 소를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이던지, 아니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오랜 기간 정성들어 만드는 수밖에 없다.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남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그 값어치가 감소되는 것이다.

바쁜 마음은 이해하나 조급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두번째, 개량은 하나도 ‘기록’ 둘도 ‘기록’ 셋도 ‘기록’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개량은



1. 혈통과 능력을 조사하고(등록 및 능력검정),
2. 조사된 능력을 근거로 우수한 개체만 고르며(선발),
3. 골라 낸 우수한 개체끼리 교배하여 능력이 더 우수한 개체를 생산(교배)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들 모두가 꼼꼼한 기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기록하는 양식이나 방법은 어떠한 상관이 없을 것이나, 한우의 경우 지역축협이 한우개량단지에 비치된 '등록우 개체기록카드'를 참고하면 보다 효율적인 기록이 가능할 것이다.

이 소의 아버, 어미 소는 어떤 능력을 가진 누구이고, 이 소의 발육상태는 어떻게, 언제 어느 소와 교배해서 어떤 송아지를 낳았고(첫 새끼, 두 번째, 세 번째, ...), 그 새끼 소들은 어떤 능력을 보였는지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나간다면 훌륭한 선발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농가에서 소를 출하하면 반드시 개체별 도체성적을 조사하여 기록함으로써, 도축된 소와 혈연관계에 있는 소들의 유전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진전되는 것이 개량이다.

세번째, 집에서 기르는 암소는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고, 암소를 살 때는 값을 더 주더라도 반드시 혈통등록우를 구입하여야 한다. 왜? 그게 돈이 되니까.

개량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곧 바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비육 밑소로 한우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수송아지를 구입하려면 능력에 따라 평균 시세보다 10~30여만원을 더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개량된 소에 대한 보상의 일종이다.

또 현재와 같이 개량된 한우에 대하여 각종 정책적 지원이 있는 때에, 자연종부로 일관하는 농가만큼 미련한 사람들은 없다. 게으름과 무책임의 소산이며, 우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하루 빨리 한우산업계에서 떠나 주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혈통등록우를 5두 이상 보유하고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중전의 한우개량단지사업) 대상농가로 들어가면, 송아지를 낳 때마다 송아지가 비싸게 팔

리는 것은 물론이고, 어미소 사료비가 지원되며(고 등등록우 8만원, 보통등록우 6만원, 혈통등록우 3만5천원), 3산 이상이 되면 20만원의 다산우장려금이, 또 5산 이상이 되면 30만원의 다산우장려금이 지원된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을 보호하는 것이다.

네번째, 최근 소개되는 첨단 유전육종기법들, 참고로 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맹신하는 것은 곤란하다.

우선 최근에 많은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한우 경제형질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specific marker)'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한우 씨수소를 선발할 때 조사한 도체성적을 근거로 육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 낸 것이므로, 이 marker 유전자를 개량 및 비육밀소 선발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나, 소의 발육이나 육질에는 많은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고, 위에서 소개한 유전자는 육질에 관여하는 많은 유전자중의 하나이므로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초음파단층촬영'을 통하여 육질에 유전능력을 조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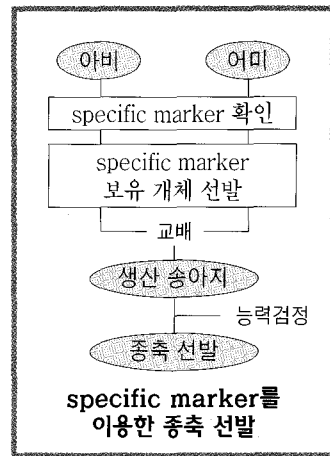
종축(씨수소나 씨암소)을 선발할 때 '육질에 대한 유전능력'은 그 소의 자손들을 생산하여 비육한 다음 도축하여 육질을 조사해보아야 알 수 있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올해부터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 등록 암소의 육질에 대한 유전능력을 초음파단층촬영 자료를 근거로 후대점검 없이 직접 평가하려는 사업을 농협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농가에서 기르는 암소의 초음파단층촬영자료를 육질에 대한 유전능력 평가자료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것도 암소의 평가시점

(나이, 산차 및 임신월령 등)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그것이 전부이다라고 생각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체세포 복제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종축을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개량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체세포 복제로 생산되는 송아지들은 우리가 이미 6~7년 전에 생산하여 종축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를 몇 마리 더 생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체세포 복제기술은 의학적으로, 또는 유전자 조작 등을 통한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는 기술 등에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농가에서 좋은 유전적인 자질을 가진 한우를 갖기 위하여는, 밀소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혈통기록이 있는 소를 사고, 자기가 기르는 소의 능력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또 그 성적을 근거로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고, 좋은 정액으로 교배하여 더 우수한 개체를 만들어 내는 일, 즉 가장 기본적인 일을 꾸준히 지속해나가는 일 밖에 없다. 또 이것이 농가에 곧 바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준다.